

# 일대일로 참여국가에 대한 중국의 무역 의존성 분석과 시사점

송민근  
인천대학교 동북아물류대학원

## Analysis of China's trade dependency on the countries participating in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Min-Geun Song  
Graduate School of Logistics, Incheon National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중국과 일대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의 상호간 무역 의존성을 분석하여 특징과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중국 국가통계국(NBS)에서 각각 200여 국가에 대한 수출입 및 GDP자료를 수집하고 90년대부터 2015년까지 추이를 살폈으며, 무역의존도에서 단방향이 아닌 양방향의 상호 의존성을 분석했다. 개별 국가 GDP에서 중국 무역의존도가 15%이상으로 매우 높은 국가들이 34개국 이상이며, 중국 대외 무역에서 미국 및 일본에 대한 수출입 비중이 낮아지고, 중동, 남아프리카, 남미, 동남아시아 등 지역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중국은 일대일로에 참여하는 국가그룹에 대해서 90년대부터 현재까지 약 60% 내외의 수출입비중과 2~30%수준의 무역의존도를 보이고 있다. 일대일로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 연구는 일대일로 사업 환경 및 중국을 둘러싼 국가들의 무역 관계에 대한 이해, 대응방안 수립 등의 관점에서 의의를 가질 것이며, 일대일로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주요 국가와 중국의 상호 간 무역 의존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제어 : 무역 의존성, 중국, 아시아, 일대일로,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China's trade relationships with and dependency on the countries participating in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and to present some implications. This study collected annual total imports, exports, and GDP data from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on 198 countries and the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of China (NBS) on 221 countries from 1995 to 2015. China's imports and exports have expanded considerably from the mid-1990s to the present, and China's dependence on imports and exports with the US and Japan has declined, while its dependence on the Middle East, South Africa, South America, and Southeast Asia has increased. China has a very high level of dependence on imports from and exports to the countries participating in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and as the Belt and Road project progresses, the mutual trade dependency between China and the other participating countries is expected to strengthen and expand.

**Key Words** : Trade dependency, China, Asia, One Belt One Road, The Belt and Road, AIIB

Received 31 July 2017, Revised 31 August 2017  
Accepted 20 September 2017, Published 28 September 2017  
Corresponding Author: Min-Geun Song(Graduate School of Logistics, Incheon National University)  
Email: haoweahter@naver.com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1. 서론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2015년 6.9%, 2016년에는 6.7%로 중국은 중속성장 시대에 진입하였고, 중국 경제를 이끌어온 대외무역이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중국의 무역은 2000년대 30%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0년을 기점으로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1]. 중국의 수출은 2010년 31.3%, 2011년 20.3%의 증가율을 보인 이후 4년간 8% 이하의 증가율을 보였고, 2015년에는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했다. 중국의 수입 또한 2010년, 2011년에 38.9%, 24.9%를 기록한 이후, 2012년부터 둔화세를 지속하고 있으며[2], 중국 정부는 2014년 중속성장을 뜻하는 뉴노멀(新常态, 신창타이) 시대를 공식화한 바 있다[3]. 이렇듯 중국은 고속 성장의 종결 및 중성장 시대의 시작과 과잉설비, 인건비 상승 등 대내적 문제, 그리고 미국의 견제와 중국 위협론 등 대외적 문제에 대한 해결점 모색과 새로운 성장 동력에 대한 필요 등에 의해 2013년 일대일로 사업(The Belt and Road initiative)을 제시하게 되었다.

중국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 사업은 중국 주요지역과 유라시아 핵심 물류지역에 항만, 철도, 도로, 공항 등 사회간접자본으로 해상 및 육상 운송 인프라를 조성하고, 아시아 인프라 개발은행(AIIB: Asia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등을 통하여 유라시아 경제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4]. 일대일로의 추진 동력으로 간주될 수 있는 AIIB에는 2014년 10월까지 21개 국가가 참여를 결정했지만, 미국의 적극적 반대로 유럽 등 주요한 역외 국가들이 사업 참여를 확정짓지 않았고 일대일로 및 AIIB에 대해 회의적 시각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미국의 반대 입장에도 영국이 참여의사를 발표하면서 유럽 주요 국가와 한국, 러시아, 브라질 등이 연이어 가입의사를 중국에 전달했고 2015년 4월 AIIB의 57개 창립회원국이 결정되었다. 또한, 2017년 5월 기준으로 AIIB에는 54개 회원국가 뿐 아니라 23개 국가가 가입이 진행 중인 잠정 회원국으로 일대일로에 참여하는 국가의 수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일대일로 사업이 본격화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중국과 일대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주요 국가들의 상호간 수출입 비중 및 무역 의존도를 분석하여 특징과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선행연구

### 2.1 국가 간 무역 의존성에 관한 연구

국가 간 무역의존성에 관하여 국가와 국가, 국가와 대륙 및 지역 범위 등에 걸쳐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Bonatti & Fracasso(2013)는 중국의 수출주도 성장과 구조변화 현상을 설명하고, 90년대 후반부터 2011년까지 미국과 중국 양국의 무역수지 및 비중 변화추이 등을 분석했다[5]. Choi and Cho(2016)는 타이완의 대중국 무역을 분석했는데 저자는 대만의 비교우위가 개선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양안 경제협력의 전망이 긍정적일 것이라고 언급했다[6]. Han(2015)과 Kim(2010)은 북한의 대중국 무역의존도를 연구했는데, Han(2015)은 북한의 중국교역에 대한 무역 비중이 1990년대 20% 수준이었으나, 2001년 30%, 2005년 50%, 2008년 70%를 거쳐 약 2년 주기로 10%내외의 상승세를 보여 왔으며, 2014년에는 90.1%에 달한다고 설명했고, 저자는 북한의 대중국무역 의존도가 지속화, 절대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7,8]. 한편, Lee and Oh(2014)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의 대중국 무역의존도를 검토했으며[9], Bown and McCulloch(2009)는 1970년~80년대의 일본과 1990년~2000년대 중국 경제가 보인 수출지향 성장구조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미국과의 관계 및 무역 비중 등을 통해 분석했다[10].

Chung(2016)은 한국과 걸프협력회의(GCC) 주요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간의 교역구조를 분석했으며[11], Choo(2015)는 ASEAN지역의 중국에 대한 의존성과 지정학적 분석을 통해 일대일로 사업에 대한 전망을 제시했다[4]. Jin et al(2016)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세계 30여개 주요 국가의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CDI)를 분석했으며[12], Kim(2014)은 중국의 인도네시아 경제에 대한 영향력을[13], Payrouse(2016)와 Shin(2016)은 중앙아시아 주요국가가 중국과 형성하고 있는 경제관계와 중국에 대한 의존성 확대를 연구했다[14,15]. Song and Lee(2012)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장되고 있으며, 공동의 이익을 기반으로 지역협력이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했으며[16], Vahalik(2014)은 18년간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중국과 EU의 무역관계와 중국의 상업적 지배력을 분석했다[17]. McDonald et al (2007)은 인도, 중국 및 동,동남아시아(E&SE)의 무역

확대 현상을 설명하고, 이에 따른 지역 내 경제통합화 움직임을 언급했으며[18], Vianna (2016)는 라틴아메리카 7개 주요국가의 성장과 1994년에서 2015년까지 중국에 대한 수출과의 관계를 분석했다[19].

<Table 1> Previous studies on trade dependenc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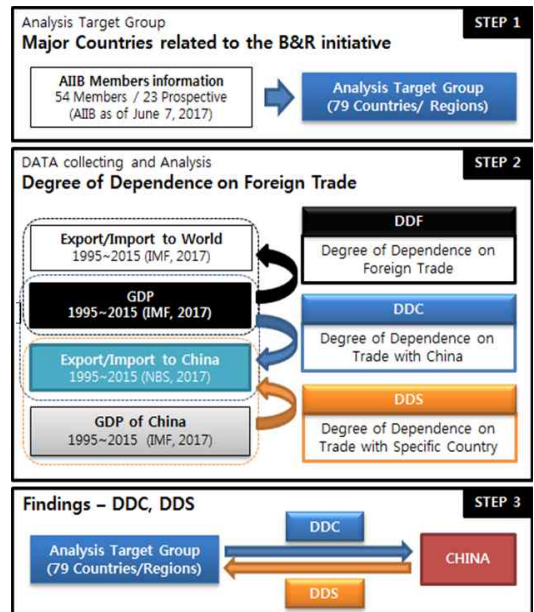
Trade dependency	Author	Keyword
China-US	Bonatti and Fracasso(2013)	Sino-American co-dependency, Global imbalances
China-Taiwan	Choi and Cho(2016)	Taiwan Economy, Cross-Strait Economic-Cooperation
China-North Korea	Han(2015)	degree of dependence upon foreign trade
China-North Korea	Kim(2010)	economic trade, economic cooperation
China-Korea, Japan	Lee and Oh(2014)	Trade Dependency, Korea-China-Japan Economic Integration
China, Japan -US	Bown and McCulloch (2009)	GATT, WTO, Reciprocity
Korea-Saudi Arabia, UAE, Qatar	Chung(2016)	Trade Intensity, Special Country Bias, Trade Structure, GCC
China-ASEAN	Choo(2015)	Chinese National Strategy, ASEAN- China Relationship
China-major countries	Jin et al (2016)	China's growth potential, Global economic governance
China-South East Asia (Indonesia)	Kim(2014)	China, Indonesia, Economy, World Input-Output Table
China-Central Asia	Peyrouse (2016)	Central Asia, China, sinophobia, sinophilia
China-Central Asia	Shin(2016)	New Normal, Central Asia, Trade Structure
China-East Asia	Song and Lee(2012)	Beijing consensus, economic interdependency
China, EU-South East Asia	Vahalik (2014)	Bilateral trade, intensity of trade, trade complementarity
China,India-E&SE Asia	McDonald et al(2007)	China, India, regional integration, growth
China-Latin America	Vianna(2016)	Trade policy, Export-led growth

### 2.2 연구의 차별성

무역관계에서 국가 간 의존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많은 연구가 중국의 영향력, 즉 특정국가 및 지역이 중국에 대해 보이는 의존성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정 국가 및 지역경제의 관점에서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분석할 때, 중국에 대한 의존성을 파악

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일대일로에 대한 사업 환경 및 중국 관점에서의 관계 해석을 위해서는 중국이 주요 국가 및 지역에 대해 보이는 의존성을 병행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일대일로 사업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사업 참여 국가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및 상호간 무역 관계를 살피기 위해서 중국의 관점에 중점을 두고, 단방향이 아닌 양방향으로 무역의존성을 분석했으며, 일대일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70여 국가와 중국과의 상호간 수출입 및 개별 국가 GDP에서 차지하는 중국 무역의존도를 도출함으로써 중국을 둘러싼 일대일로 국가들과의 무역 관계 특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기존에 진행되어온 연구와 차별성 및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국제통화기금과 중국 국가통계국에서 199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 자료를 종합하여 추이를 비교했으며, 중국과 주요 국가의 무역 의존성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시도했다.

### 3. 분석대상 및 연구방법



[Fig. 1] Data extraction and analysis flow

[Fig. 1]은 분석 대상의 산정, 자료 수집 및 분석에 대한 전반적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연구

대상에 관한 것으로 분석의 주된 대상그룹인 ‘일대일로 참여국가’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회원국가 및 추진국가에 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79개 국가 및 지역을 일대일로 참여국가로 간주했다. 두 번째 단계는 자료의 취득, 분석 단위 산정 및 연구 방법으로 활용한 무역의존도 계산으로, 1995년부터 2015년까지 국제통화기금(IMF) 및 중국 국가통계국(NDC)의 관련 자료를 수집했으며, 개별 국가의 GDP 및 중국과의 수출입을 기준으로 무역의존도 산출을 진행했다. 세 번째 단계는 분석을 통해 도출한 중국과 주요 국가 간 무역 규모 및 의존도 등을 통해 특징과 시사점을 제시한다.

### 3.1 일대일로 참여국가에 대한 범위 산정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은 유라시아 대륙을 중심으로 매우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어느 국가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기준이 다소 모호하다는 특징을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일대일로의 추진동력으로 간주되고 있는 AIIB의 회원국 정보를 토대로 일대일로 참여 국가의 범위를 규정하고자 한다. 최근 2017년 7월 기준으로 업데이트된 AIIB 공식 웹페이지에는 아래와 같이 54개 국가가 회원국으로, 23개 국가가 회원가입이 진행 중인 잠정회원국으로 명시되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2> AIIB member countries

AIIB-Member Countries		
Regional Countries (36)		
Australia	Kazakhstan	Philippines
Azerbaijan	Korea	Qatar
Bangladesh	Kyrgyzstan	Russia
Brunei	Laos	Saudi Arabia
Cambodia	Malaysia	Singapore
China	Maldives	Sri Lanka
Georgia	Mongolia	Tajikistan
India	Myanmar	Thailand
Indonesia	Nepal	Turkey
Iran	New Zealand	UAE
Israel	Oman	Uzbekistan
Jordan	Pakistan	Vietnam
Non-Regional Countries (18)		
Austria	Germany	Norway
Denmark	Iceland	Poland
Egypt	Italy	Portugal
Ethiopia	Luxembourg	Sweden
Finland	Malta	Switzerland
France	Netherlands	UK

AIIB-Prospective Member Countries		
Regional Countries (9)		
Afghanistan	Cyprus	Kuwait
Armenia	Fiji	Samoa
Bahrain	Hong Kong	Timor-Leste
Non-Regional Countries (14)		
Belgium	Greece	South Africa
Bolivia	Hungary	Spain
Brazil	Ireland	Sudan
Canada	Peru	Venezuela
Chile	Romania	

위의 <Table 2>에서 홍콩은 AIIB의 잠정회원국으로 명시되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홍콩은 중국의 기준에서 볼 때, 국가 단위가 아닌 중국의 특별행정구역에 해당되지만, 중국 및 해외의 각종 통계에서 어떤 경우에는 국가로 어떤 경우에는 중국의 행정구역으로 구분되는 혼선이 있다. 실제로 중국 국가통계국에서 발표하는 수출입 통계에서도 홍콩은 국가적 지위로 분류되어있으며, 표현만 지역(region) 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IMF의 수출입통계와 중국 국가통계국의 자료를 동일 기준으로 적용해야하기 때문에 홍콩을 국가단위로 구분했다. 또한, 타이완, 마카오도 중국의 행정구역이지만 해외 통계지표에서는 국가단위로 구분되어있으며, AIIB의 참여국은 77개 국가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타이완과 마카오가 중국의 행정구역인 것을 감안하여 타이완과 마카오를 포함한 총 79개 국가 및 지역을 현재 시점의 ‘일대일로 참여국가’로 간주하고자 한다.

### 3.2 자료의 수집 및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중국과 주요 국가의 상호간 수출입 총액과 개별 국가의 GDP를 통해 상호간 무역 의존도를 분석했다. 국가 간 무역의존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중국 국가통계국(NBS: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of China)에서 제공하고 있는 95년부터 2015년까지 약 221개 국가의 수출입자료를 수집했으며, 해당 국가의 전체 수출입자료를 확인하기 위해서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을 통해 동일 기간 약 198개 국가에 대한 연도별 수출입자료를 확보했다. 또한, 개별 국가의 GDP(국내총생산, Gross Domestic Product)는 IMF에서 약 192개 국가에 대한 명목 GDP자료를 수집했다. 2017년 7월 제공된 자료를 기준으로 했고, NBS에서 제공하는 자료가 1994년부터 2015년까지인 것을 감안하여 NBS와

IMF 공통으로 1995~1999년, 2000~2004년, 2005~2009년, 2010~2014년의 5년 단위로 수출과 수입총액 및 GDP의 연도별 평균값을 적용하여 국가 간 분석을 진행했다.

개별 국가의 무역 관계에서 특정 국가 및 지역이 차지하고 있는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수출입 비중이 활용될 수 있으며, Jin et al(2016)은 중국에 대한 수출입 비중을 통한 중국 의존도(CDI: The China Dependency Index)를 파악하여 특정 국가에 미치는 중국의 영향력을 제시했는데, 각 국가의 수출 CDI는 해당 국가의 중국 수출액을 전체 수출액으로 나누어 계산할 수 있다[11]. 하지만, 국가별로 GDP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특정 국가와의 무역이 개별 국가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수출입 총액 및 비중 분석과 별도로 무역의존도(DDF: Degree of Dependence on foreign trade)에 대한 파악이 필요할 것이다. 무역의존도(DDF)는 한 나라의 국민 경제에서 무역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GDP 대비 무역(수출과 수입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Table 3> Degree of Dependence on Foreign trade (DDF)

DDF	$\frac{\text{Total exports + imports of specific countries}}{\text{GDP of specific countries}} \times 100$
-----	--

무역의존도(DDF)는 해당 국가의 전체 GDP에서 국가 총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특정 국가에 대한 무역액이 해당 국가 GDP에서 미치는 정도를 아래의 <Table 4>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

<Table 4> Degree of Dependence on trade with China (DDC) and trade with Specific Country(DDS)

DDC	$\frac{\text{Total exports + imports to/from China}}{\text{GDP of specific countries}} \times 100$
DDS	$\frac{\text{Total exports + imports to/from specific countries or regions}}{\text{GDP of China}} \times 100$

<Table 4>에서 중국 무역의존도(DDC)는 특정국가의 GDP에서 중국 무역이 차지하는 정도를 나타내며, 특정 국가 무역의존도(DDS)는 중국의 GDP에서 특정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방식을 주요 국가에 적용하여, 주요 국가들의 중국 무역의존도(DDC)와 중국의 특정 국가에 대한 무역의존도(DDS)를 종합하여 특정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4. 주요 국가와 중국의 무역 의존성

##### 4.1 주요 국가의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성

<Table 5>는 2015년 기준으로 중국과의 수출입 총액이 높은 30개 국가를 대상으로 했고, 국가별 GDP를 기준으로 개별 국가의 무역의존도(DDF: Degree of Dependence on Foreign trade), 수출입비중(SEI: Share of Total Exports and Imports) 그리고 GDP대비 중국 무역의존도(DDC)를 도출한 것이다.

2015년 대중국 수출입 총액 기준으로 1위 미국의 중국 수출입비중(SEI)은 14.6%이며, 2위 홍콩이 34.8%, 3위 일본이 21.9%, 4위 한국이 28.6%, 5위 대만이 36.9%로 나타났다. 독일(6.6%), 영국(7.4%), 네덜란드(7.6%), 이탈리아(5.2%) 등 유럽지역 국가는 중국과의 수출입 총액 규모가 크지만 해당 국가의 총수출입에서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수출입 총액 상위 30위 국가에서 미국과 일본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일대일로 참여국가(BR)로 확인되고 있다. 세부적 특징을 살펴보면, 브라질은 아직 AIIB정식 회원국은 아니지만 창립 회원국의 지위로 AIIB에 가입이 예정되어있고, 캐나다, 칠레, 벨기에에는 AIIB 가입의사를 표명하고 현재 승인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Table 5> The major countries' DDC (US\$Billions, %)

Country	BR <sup>1)</sup>	Trade with China	SEI <sup>2)</sup>	GDP	DDF <sup>3)</sup>	DDC <sup>4)</sup>
US	X	557.0	14.6	18,037	21.2	3.1
Hong Kong	O	343.2	34.8	309	319.0	110.9
Japan	X	278.5	21.9	4,382	29.1	6.4
Korea	O	275.8	28.6	1,383	69.7	19.9
Taiwan	O	188.1	36.9	525	96.9	35.8
Germany	O	156.8	6.6	3,365	70.7	4.7
Australia	O	113.8	28.7	1,230	32.2	9.3

Malaysia	O	97.3	25.9	296	126.8	32.8
Vietnam	O	95.8	29.5	191	169.8	50.1
Singapore	O	79.5	12.4	297	216.7	26.8
UK	O	78.5	7.4	2,863	37.1	2.7
Thailand	O	75.5	18.3	399	103.4	18.9
India	O	71.6	10.8	2,088	31.7	3.4
Brazil	O	71.5	19.3	1,801	20.5	4.0
Netherlands	O	68.2	7.6	751	119.4	9.1
Russia	O	68.0	12.3	1,366	40.5	5.0
Canada	O	55.6	6.6	1,553	54.4	3.6
Indonesia	O	54.2	18.5	861	34.0	6.3
Saudi Arabia	O	51.6	13.7	652	57.8	7.9
France	O	51.4	4.9	2,420	43.7	2.1
UAE	O	48.5	9.8	370	133.7	13.1
South Africa	O	46.0	26.7	315	54.7	14.6
Philippines	O	45.6	34.2	292	45.6	15.6
Italy	O	44.7	5.2	1,826	47.5	2.4
Switzerland	O	44.3	11.5	671	57.2	6.6
Iran	O	33.8	32.1	374	28.2	9.0
Chile	O	31.7	25.0	243	52.3	13.1
Spain	O	27.4	4.6	1,194	49.8	2.3
Belgium	O	23.2	3.0	455	169.9	5.1
Turkey	O	21.6	6.1	859	40.9	2.5

Source: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NBS(National Bureau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Note: (1)BR: Participation countries in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2) SEI(Share of Total Exports and Imports)= (Exports and Imports with China/Total Exports and Imports of Specific Country)\*100(%)  
 (3) DDF(Degree of Dependence on Foreign Trade)= {(Total exports + imports to/from specific countries)/GDP of specific countries}\*100  
 (4) DDC(Degree of Dependence on trade with China)= {(Total exports + imports to/from China)/GDP of specific countries}\*100

위의 표에서 수출입비중(SEI)은 특정 국가의 수출입 총액에서 중국과의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이를 통해서도 무역 관계에서 중국 의존정도를 확인할 수 있지만, 국가별로 GDP대비 무역의존도(DDF)가 다르기 때문에 DDC를 계산하면, 개별 국가의 경제총량에서 중국과의 수출입이 차지하는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표에서 한국과 베트남의 SEI는 28.6%, 29.5%로 큰 차이가 없지만 한국보다 베트남의 무역의존도(DDF)가 매우 크며 이에 따라 한국의 중국 무역의존도(DDC)는 19.9%, 베트남의 DDC는 50.1%로 비교적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DDC를 통해 개별 국가의 GDP에서 차지하는 중국 무역의 영향력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Table 6> Changes in DDC of major countries (US\$Billions, %)

Country	BR	2015 GDP	DDC <sup>(1)</sup> (%)				
			1995-99	2000-04	2005-09	2010-14	2015
Djibouti	X	1.7	4.5	9.6	22.7	59.2	114.7

Hong Kong	O	309.4	28.3	45.3	86.1	124.9	110.9
Liberia	X	2.0	-	22.3	98.5	205.8	75.0
Togo	X	4.2	5.4	13.7	38.7	60.6	57.5
Vietnam	O	191.3	4.8	10.6	18.4	35.6	50.1
Solomon Islands	X	1.1	-	8.7	32.2	42.8	47.9
Congo (Rep)	X	8.6	2.4	3.4	11.0	27.8	47.2
Mongolia	O	11.7	16.0	25.3	35.3	55.5	45.8
Gambia	X	0.9	8.8	16.1	21.1	37.1	43.3
Tuvalu	X	0.0	-	-	58.3	96.2	39.0
Benin	X	8.3	5.4	15.3	30.4	36.0	37.0
Taiwan	O	525.2	7.0	15.2	28.2	35.2	35.8
Malaysia	O	296.3	4.6	13.9	22.8	30.6	32.8
Mauritania	X	4.8	1.4	4.2	22.4	36.1	31.4
Kiribati	X	0.2	-	-	4.1	11.3	29.0
Malta	O	10.3	0.8	5.9	13.6	32.3	27.4
Singapore	O	296.8	8.9	16.8	26.4	24.5	26.8
Myanmar	O	59.5	6.7	8.7	6.3	18.0	25.4
Cambodia	O	17.8	3.7	7.0	10.0	20.5	24.9
Oman	O	69.8	5.5	12.3	19.2	25.9	24.6
Turkmenistan	X	36.0	0.4	0.7	2.3	22.3	24.0
Tajikistan	O	7.9	1.7	2.1	20.7	26.2	23.5
Laos	O	12.6	2.1	4.2	8.3	22.3	22.1
Korea	O	1,382.8	4.2	8.5	15.2	20.4	19.9
South Sudan	X	12.5	-	-	-	16.9	19.9
Guinea	X	6.7	1.3	2.0	7.0	14.6	19.3
Angola	X	103.0	6.1	17.2	25.9	29.5	19.2
Thailand	O	399.2	2.5	7.4	13.1	17.1	18.9
Bahama	X	8.9	-	1.2	3.3	7.3	18.2
Ghana	X	37.4	0.7	3.1	5.5	10.8	17.7
Panama	X	52.1	8.8	11.3	25.5	31.6	16.9
Senegal	X	13.7	0.8	1.2	2.8	6.8	16.8
Mozambique	X	14.8	0.4	1.2	8.1	11.5	16.1
Philippines	O	292.5	2.2	8.4	16.8	14.5	15.6

Source: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NBS(National Bureau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Note: (1)DDC(Degree of Dependence on trade with China)= {(Total exports + imports to/from China)/GDP of specific countries}\*100

<Table 5>는 중국의 무역규모가 큰 국가를 대상으로 무역의존도를 파악했는데, <Table 6>은 중국 무역의존도(DDC)가 2015년 기준으로 15%이상의 높은 수치를 보인 34개 국가의 연도별 DDC추이를 살펴본 것이다. 표를 보면, GDP 17억 달러의 아프리카 지부티가 114.7%의 매우 높은 DDC값을 보였는데, 90년대 후반 4.5%에서 2000년대 초반 9.6%, 2010년대 초반 59.2%로 국가 GDP대비 중국과의 무역 비중이 빠르게 확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홍콩의 경우에도 90년대 후반의 28.3%에서 2015년 110.9%로, 라이베리아, 토고, 베트남 등도 90년대 후반까지 DDC가 5% 내외였으나 2015년 75.0%, 57.5%, 50.1%까지 국가 경제총량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어왔다.

2015년 중국 무역의존도(DDC)가 15% 이상인 국가 중 가장 큰 GDP수치를 보이는 국가는 한국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90년대 후반기준 중국 무역의존도는 4.2%였으나, 2000년대 8.5%, 15.2%로 확대되었고, 2000년대 초반 20.4% 수준까지 중국의 영향력이 큰 폭으로 확대된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높은 DDC값을 보인 국가들은 한국, 타이완, 홍콩,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국가를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국가별 GDP기준에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경제총량이 낮고 개발이 진행 중인 개도국에서 무역의존도가 특정 국가에 집중되면 해당 국가위주로 시스템이 마련되고, 해당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고착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북한의 대중국 무역비중이 90%이상으로 확대되면서 북한의 중국 예측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최근의 정세와 유사한 맥락인데, 표에서 지부티, 라이베리아, 토고, 솔로몬제도, 콩고, 감비아, 투발루, 베냉 등은 매우 낮은 수준의 경제총량을 보이고, 중국의 무역의존도가 급격하게 확대되어온 것을 볼 수 있다. 해당 국가들의 무역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현재 기준에서 중국 경제에 대한 양적 기여도는 미비하지만, 협력에 따른 발전 잠재력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당 국가들의 상대수가 아직 일대일로 참여국가가 아니지만, DDC가 높은 국가들의 대부분이 중국 주도의 개발 사업에 긍정적 입장을 보일 것이며, 중국도 이들 국가들과의 협력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발전 계획을 추진해갈 것으로 예상된다.

#### 4.2 중국의 주요국가에 대한 무역 의존성

주요국가의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에서는 수출과 수입비중을 별도로 계산하지 않았지만, 본 연구는 일대일로 사업과 관련하여 중국의 대외의존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중국의 수출입 비중을 추가로 살펴보고, 중국 GDP에 근거한 무역의존도를 계산하고자 한다.

##### 4.2.1 중국의 주요 국가에 대한 수출비중

주요 국가에 대한 중국의 수출비중 추이는 <Table 7>과 같다. 2015년 중국 수출총액을 기준으로 중국의 대외수출에서 국가별 순위는 미국, 홍콩, 일본, 한국, 독일 순으로 나타났고, 상위 5위 국가에 대한 수출비중(STE)이 44.65%, 상위 30위 국가에 대한 중국 전체 수출의 비중은 약 80.92%로 확인되고 있다.

<Table 7> Changes in STE of China

Country	BR <sup>1)</sup>	STE <sup>2)</sup> (%)				
		1995-99	2000-04	2005-09	2010-14	2015
US	X	19.34	21.03	19.21	17.23	17.47
Hong Kong	O	21.88	17.45	14.71	15.56	14.11
Japan	X	17.23	14.31	8.81	7.20	5.79
Korea	O	4.21	4.66	4.72	4.31	4.32
Germany	O	2.75	3.33	4.13	3.53	2.95
Vietnam	O	0.52	0.69	1.01	1.99	2.82
UK	O	2.27	2.51	2.55	2.37	2.54
Netherlands	O	2.56	2.94	2.22	2.93	2.54
India	O	0.55	0.82	1.95	2.42	2.49
Singapore	O	2.29	2.14	2.36	2.03	2.22
Taiwan	O	2.02	2.09	1.92	1.88	1.92
Malaysia	O	0.91	1.33	1.49	1.80	1.88
Australia	O	1.23	1.43	1.53	1.75	1.72
Thailand	O	0.82	0.92	1.05	1.44	1.63
UAE	O	0.72	1.06	1.42	1.50	1.58
Russia	O	0.99	1.26	1.94	2.16	1.48
Indonesia	O	0.88	1.07	1.12	1.61	1.47
Canada	O	1.13	1.31	1.54	1.35	1.26
Italy	O	1.38	1.52	1.71	1.45	1.19
Brazil	O	0.53	0.53	1.01	1.60	1.17
France	O	1.40	1.53	1.62	1.40	1.14
Philippines	O	0.74	0.67	0.64	0.86	1.14
Spain	O	0.78	0.73	1.28	0.96	0.93
Saudi Arabia	O	0.48	0.49	0.65	0.83	0.92
Turkey	O	0.32	0.41	0.73	0.80	0.79
Iran	O	0.29	0.42	0.56	0.76	0.76
Pakistan	O	0.36	0.38	0.45	0.49	0.70
Belgium	O	0.82	0.93	1.00	0.82	0.69
South Africa	O	0.44	0.45	0.59	0.72	0.68
Poland	O	0.37	0.35	0.53	0.60	0.61

Source: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NBS(National Bureau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Note: (1)BR: Participation countries in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2)STE(Share of Total Exports)=(Export to specific countries or regions/Total Export of China)\*100(%)

중국의 수출비중이 감소한 국가로는 대표적으로 일본이 있는데 당초 17.23%에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여, 2015년에는 약 5.79%로 중국의 일본 수출비중은 약 66.4%이상 크게 축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수출비중이 가장 높은 미국의 비중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대비하여 베트남의 경우 1990년대 후반 대비 4.4배, 인도의 경우 3.5배 이상 비중이 확대되었으며, 한국, 독일, 영국, 네덜란드 등의 수출 비중은 시기별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4.2.2 중국의 주요 국가에 대한 수입비중

주요 국가에 대한 중국의 수입비중 추이는 <Table 8>과 같다. 2015년 중국 수입총액을 기준으로 중국의 해외 수입에서 국가별 순위는 한국, 미국, 타이완, 일본, 독일 순으로 나타났고, 상위 5위 국가에 대한 수입비중(STI)가 35.5%, 상위 30위 국가에 대한 중국 전체 수입의 비중은 약 68.7%로 확인되고 있다. 수출에서 상위 5위 국가의 비중과 30위 국가의 비중이 각각 44.65%, 80.92%인 것을 감안하면, 수입에 대한 비중은 수출과 대비할 때 상대적으로 넓게 분포되어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Table 8> Changes in STI of China

Country	BR <sup>1)</sup>	STI <sup>2)</sup> (%)				
		1995-99	2000-04	2005-09	2010-14	2015
Korea	O	9.90	10.39	10.67	9.80	8.90
US	X	11.87	8.88	7.39	7.80	7.50
Taiwan	O	11.61	11.80	9.94	7.90	7.30
Japan	X	20.67	17.62	13.89	10.20	7.30
Germany	O	3.66	4.88	4.96	5.30	4.50
Australia	O	2.09	2.02	3.04	4.90	3.80
Malaysia	O	1.87	3.06	3.01	3.30	2.70
Brazil	O	0.83	1.24	2.19	2.90	2.30
Switzerland	O	0.62	0.66	0.62	1.90	2.10
Thailand	O	1.52	2.02	2.31	2.20	1.90
Russia	O	2.71	2.53	2.16	2.20	1.70
South Africa	O	0.52	0.48	0.71	2.20	1.50
Saudi Arabia	O	0.53	1.20	2.19	2.80	1.50
Vietnam	O	0.22	0.40	0.38	0.80	1.50
Singapore	O	2.78	2.40	1.97	1.70	1.40
Canada	O	1.60	1.33	1.12	1.30	1.30
France	O	2.22	1.50	1.37	1.30	1.30
Indonesia	O	1.76	1.48	1.29	1.60	1.00
Philippines	O	0.35	1.28	1.87	1.10	1.00
UK	O	1.53	1.08	0.82	1.00	1.00
Chile	O	0.30	0.58	0.99	1.20	0.90
Italy	O	1.81	1.31	1.06	1.00	0.90
Iran	O	0.35	0.83	1.38	1.50	0.80
Angola	X	0.19	0.61	1.48	1.70	0.80
Oman	O	0.55	0.72	0.52	1.00	0.80
India	O	0.52	0.99	1.51	1.10	0.70
Hong Kong	O	5.02	3.02	1.26	0.90	0.70
Iraq	X	0.04	0.07	0.14	0.80	0.60
UAE	O	0.10	0.19	0.33	0.60	0.60
Netherlands	O	0.64	0.53	0.34	0.50	0.40

Source: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NBS(National Bureau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Note: (1)BR: Participation countries in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2)STI(Share of Total Imports)=(Imports from specific countries or regions/Total Imports of China)\*100(%)

중국의 수입비중 추이에서도 수출에서와 유사하게 일본에 대한 비중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당초 일본에 대한 수입비중은 20.67%였으나 2015년 7.3%까지 약 64.7% 수준으로 비중이 감소했으며, 미국과, 이탈리아, 프랑스 등 유럽지역에 대한 수입비중도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 반면, 이라크,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지역과 남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동남아시아 등 기타 지역에 대한 수입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

4.2.3 주요 국가에 대한 중국의 무역의존도(DDS)

2015년을 기준으로 중국의 DDS(개별국가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높은 30개 국가의 시기별 DDS 변화추이는 <Table 9>와 같다. 중국의 개별 국가에 대한 무역의존도에서 가장 높은 값을 보인 국가는 미국(4.96%)이며, 다음으로 홍콩, 일본, 한국, 타이완, 독일, 호주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9> Changes in DDS of China

Country	BR <sup>1)</sup>	DDS <sup>2)</sup> (%)				
		1995-99	2000-04	2005-09	2010-14	2015
US	X	5.49	7.14	7.66	5.65	4.96
Hong Kong	O	4.91	4.94	4.78	3.85	3.06
Japan	X	6.45	7.48	6.11	3.77	2.48
Korea	O	2.32	3.49	4.07	3.01	2.46
Taiwan	O	2.17	3.18	3.04	2.05	1.68
Germany	O	1.44	2.40	2.48	1.92	1.40
Australia	O	0.55	0.81	1.22	1.42	1.01
Malaysia	O	0.46	1.02	1.20	1.10	0.87
Vietnam	O	0.13	0.26	0.40	0.64	0.85
Singapore	O	0.86	1.07	1.20	0.82	0.71
UK	O	0.67	0.86	0.98	0.76	0.70
Thailand	O	0.39	0.68	0.89	0.78	0.67
India	O	0.18	0.43	0.97	0.80	0.64
Brazil	O	0.23	0.41	0.85	0.97	0.64
Netherlands	O	0.58	0.84	0.76	0.79	0.61
Russia	O	0.61	0.88	1.12	0.96	0.61
Canada	O	0.46	0.62	0.74	0.58	0.50
Indonesia	O	0.44	0.60	0.66	0.71	0.48
Saudi Arabia	O	0.17	0.39	0.74	0.76	0.46
France	O	0.61	0.71	0.83	0.60	0.46
UAE	O	0.15	0.30	0.51	0.48	0.43
South Africa	O	0.16	0.22	0.35	0.61	0.41
Philippines	O	0.19	0.45	0.66	0.42	0.41
Italy	O	0.54	0.67	0.78	0.54	0.40
Switzerland	O	0.16	0.21	0.23	0.43	0.39
Iran	O	0.11	0.29	0.51	0.48	0.30
Chile	O	0.10	0.20	0.36	0.37	0.28
Spain	O	0.21	0.30	0.49	0.30	0.24



Belgium	O	0.26	0.38	0.44	0.31	0.21
Turkey	O	0.07	0.12	0.26	0.23	0.19

Source: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NBS(National Bureau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Note: (1)BR: Participation countries in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2)DDS(Degree of Dependence on trade with specific country)= ((Total exports + imports to/from specific countries or regions)/GDP of China)\*100

중국 GDP에서 특정 국가의 무역총액이 차지하는 무역의존도(DDS)는 앞서 <Table 5, 6>에서 살펴본 DDC와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특정 국가의 중국 무역의존도(DDC)는 2015년 기준으로 상위 30개 국가 평균이 약 35.13%인 것에 반해 중국의 특정국가에 대한 무역의존도(DDS)의 상위 30개 국가 평균이 약 0.95%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DDC값이 15%이상을 보인 국가가 34개 국가 이상인 것과 대비하여 중국의 DDS값은 가장 높은 미국이 4.96%이며, 미국, 홍콩, 일본, 한국의 4개 국가를 제외하고는 모두 1%대 이하의 DDS를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중국의 대외적 의존도가 특정 국가에 집중되어 있기 보다 비교적 분산되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90년대부터 현재까지 가장 높은 DDS를 보인 국가와 시점은 2000년대 후반 미국의 7.66%와 2000년대 초반 일본의 7.48이지만, 미국과 일본에 대한 무역의존도는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 4.2.4 중국의 대륙별 수출입비중과 무역의존도

다음으로 대륙별로 중국의 수출입비중 및 무역의존도 변화를 살펴보면 <Table 10>과 같다.

중국의 대륙별 수출과 수입을 비교해보면 북미지역에 대한 수출비중(STE)의 전 구간 평균은 20.10%이나 수입비중(STI)은 10.11%로 나타났다. 2015년 기준으로 수입비중이 수출과 대비하여 2배 가까이 높았다. 유럽은 큰 차이가 없으나 수출이 다소간 높았고, 아시아는 수출과 수입에서 모두 다른 대륙과 비교할 때 매우 높은 비중을 보였다. 수출입 비교 시에는 수입비중(STI)이 수출에 비해 모든 구간에서 높게 나타났다. 대륙별 세부 특징을 살펴보면, 북미지역에 대한 중국의 수출입비중(SEI)이 축소되고 있으며, 아시아의 경우 수출입비중이 매우 높지만 비중이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반면, 남미,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의 경우 중국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 높지 않은 지역이지만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다. 중국의 수출입은 50%이상이 아시아에 집

중되어있고, 아시아, 유럽, 북미 등 그동안 중국의 수출입 비중이 높았던 지역에서 비중이 점차 축소되고 있으며, 남미,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지역 등에서 꾸준히 수출입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중국의 수출입의존도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기보다 분산되고 있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10> Changes in DDS by continent

		1995	2000	2005	2010	2015
		-99	-04	-09	-14	
STE (Exports)	Asia	56.56	51.36	47.00	49.08	50.74
	Europe	17.02	19.47	22.88	19.73	18.73
	N.America	20.47	22.35	20.76	18.71	18.20
	S.America	2.58	2.94	4.30	6.14	5.82
	Africa	1.95	2.24	3.25	4.19	4.53
	Oceania	1.42	1.64	1.81	2.14	1.99
STI (Imports)	Asia	61.21	64.51	63.64	57.31	55.38
	Europe	19.39	17.34	14.98	16.41	17.16
	N.America	13.46	10.22	8.52	8.96	9.41
	S.America	2.19	3.29	5.47	6.62	6.48
	Africa	1.33	2.29	4.08	5.37	5.90
	Oceania	2.42	2.36	3.31	5.10	5.59
SEI (Total)	Asia	57.35	57.69	54.47	52.88	52.85
	Europe	17.42	18.44	19.33	18.19	18.02
	N.America	19.28	16.51	15.26	14.21	14.19
	S.America	2.52	3.11	4.82	6.37	6.12
	Africa	1.85	2.27	3.63	4.74	5.15
	Oceania	1.59	1.99	2.48	3.51	3.63
DDF of CHINA		34.3	47.0	55.1	43.9	38.3
DDS	Asia	20.1	27.1	30.0	23.2	20.3
	Europe	6.2	8.7	10.7	8.0	6.9
	N.America	5.9	7.8	8.4	6.2	5.4
	S.America	0.8	1.5	2.7	2.8	2.3
	Africa	0.6	1.1	2.0	2.1	2.0
	Oceania	0.6	0.9	1.4	1.5	1.4

Source: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NBS(National Bureau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Note: (1)BR: Participation countries in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2)SEI(Share of Total Exports and Imports)= (Exports and Imports with Specific countries/Total Exports and Imports of China)\*100(%) (3)DDS(Degree of Dependence on trade with specific countries)= ((Total exports + imports to/from specific countries or regions)/GDP of China)\*100

#### 4.2.5 일대일로 그룹에 대한 수출입비중과 무역의존도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일대일로 참여국가로 산정한 79개 국가 및 지역을 하나의 그룹으로 간주하여 중국의 일대일로 참여국가 그룹에 대한 수출입비중과 무역 의존도 추이를 종합하면 다음의 <Table 11>과 같다.

<Table 11> Changes in DDS of BR countries

Total Exports and Imports (US\$Billions)					
Year	95-99	00-04	05-09	10-14	2015
Exports	104.1	222.6	727.6	1,356.6	1,528.0
Imports	89.2	222.3	587.6	1,200.2	1,141.3
Total	193.3	444.9	1,315.2	2,556.7	2,669.3
SEI (%)					
Year	95-99	00-04	05-09	10-14	2015
Exports	58.64	59.44	65.19	67.78	65.24
Imports	61.49	63.96	64.64	69.87	58.25
Total	59.92	61.61	64.94	68.75	62.05
DDS (%)					
Year	95-99	00-04	05-09	10-14	2015
Exports	11.08	14.50	19.79	16.02	13.61
Imports	9.49	14.48	15.98	14.18	10.17
Total	20.57	28.99	35.78	30.20	23.78

Source: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NBS(National Bureau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Note: (1)BR: Participation countries in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2)SEI(Share of Total Exports and Imports)=(Exports and Imports with Specific countries/Total Exports and Imports of China)\*100(%) (3)DDS(Degree of Dependence on trade with specific country)=((Total exports + imports to/from specific countries or regions)/GDP of China)\*100

먼저 중국과 일대일로 참여국가 그룹 간 수출입 총액의 규모 변화를 시점별로 나누어보면,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상반기까지 130.11%, 2000년대 상반기에서 하반기까지 195.64%, 2000년대 하반기부터 2010년대 상반기까지 다시 94.4% 확대되었다. 수출입 총액의 확대 상승폭이 2000년대부터 다소 축소된 것은 2010년 및 2011년 이후 중국의 수출입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1990년대 후반 수출입총액의 평균이 193.3십억 달러이며, 2015년 수출입총액은 2,669.3십억 달러로 약 20년에 걸쳐 중국과 일대일로 참여국가의 수출입 총액은 약 1,280%이상 증가되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중국의 일대일로 참여국가 그룹에 대한 수출입비중을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약 63.4%내외의 매우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수출비중은 수입비중보다 높지만 전반적으로 수출과 수입에 대한 비중에는 큰 차이가 없으며, 2010년대 전반기에 수출입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일대일로 국가그룹에 대한 수출입비중 및 무역의존도(DDS)를 앞서 <Table 10>의 대륙 단위와 비교하면, 2015년 일대일로 그룹에 대한 수출입비중(SEI)은 62.05%로 아시아(52.85%), 유럽(18.02%), 북미(14.19%)에 대한 비중보다 크며, 일대일로 그룹에 대한 무역의존도(DDS) 또한 23.78%로 아시아(20.3%), 유럽

(6.9%), 북미(5.4%)에 대한 무역의존도를 상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5. 결론

중국은 증속성장시대에 진입했으며, 중국 경제를 견인한 대외무역이 2010~12년부터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대내외적 어려움과 새로운 성장 동력에 대한 필요 등으로 2013년 일대일로 사업을 제안하게 되었다. 일대일로는 표면적으로 볼 때 많은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국제 물류인프라 사업이지만, 2049년까지 향후 30년 이상 진행이 계획되어있는 중국의 전략사업이며, 일대일로 사업 추진을 통해 중국의 아시아 및 세계 경제에 대한 영향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대일로 사업이 시작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중국과 일대일로 참여국가에 대한 무역의존성 분석은 일대일로 사업의 추진배경 및 중국을 둘러싼 주요 국가의 무역 관계에 대한 종합적 이해, 향후 사업방향 예측과 대응방안 수립 등의 관점에서 의의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국가 간 수출입비중과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무역의존도(Degree of Dependence on foreign trade)를 활용했으며, 단방향의 의존성이 아닌 중국과 주요 국가의 양방향 의존성을 파악했다. 먼저, 주요 국가의 중국에 대한 의존성 검토에서는 수출입 규모가 큰 상위 30위 국가 중 미국과 일본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일대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으며, 개별 국가의 GDP에서 중국 무역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중국 무역의존도(DDC: Degree of Dependence on trade with China)가 2015년 기준으로 15%를 넘어서는 34개 국가를 확인했다. 또한, 중국의 대외 국가에 대한 무역의존성 검토에서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미국, 일본, 유럽 등의 수출입비중이 높았으나 점차 비중이 낮아지는 추세이며, 이라크 등 중동지역과 아프리카, 남미 등 기타 지역에 대한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중국은 일대일로 참여 국가그룹에 대해서 약 63.4% 내외의 높은 수출입비중과 GDP대비 2~30% 수준의 무역의존도를 보였다. 본 연구는 중국의 관점에 중점을 두고, 단방향의 아닌 양방향의 무역의존성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차별성이 있으며, 중국과의 수출입 규모를 토대로 개별 국

가의 수출입비중과 무역의존도를 확인하고, 일대일로 국가그룹을 분류해서 중국 수출입에서 일대일로 참여 국가의 특징을 확인했으며, 일대일로 개별 국가 및 그룹에 대한 연도별 추이를 파악하여 종합적인 분석을 시도하고 특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대규모 물류인프라 구축사업은 다자개발은행(MDB)을 중심으로 많이 진행되는데, 유라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의 대표적 MDB인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IMF(국제통화기금), ADB(아시아개발은행) 등의 공식적 사업 추진 목적은 '개도국에 대한 빈곤경감, 거시적 경제안정' 등이다. 하지만 중국의 AIIB는 '중국과 유라시아 주요국가의 물류 연결성 증대'를 방향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IBRD, IMF, ADB 등의 사업과 근본적인 차이를 갖고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는 이타적으로 아시아 국가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프라 구축을 통해 상호간 원원 구조를 만들자는 발전 구상이다. 따라서, 일대일로 사업 구상 및 추진 배경에는 중국의 필요와 개별 국가의 이익이 병행되어야 하는 특징이 있다. 또한, 본 연구의 분석을 통해 중국 의존도가 높은 국가의 상대수가 낮은 경제총량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경제총량이 낮고 개발이 진행 중인 개도국에서 무역 의존도가 특정 국가에 집중되면 해당 국가위주로 시스템이 조성되고 해당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고착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일대일로 사업이 향후 구체화 되어갈 수록 일대일로에 참여 하고 있는 국가에 대한 분석에는 개별 국가관점에서의 접근과 동시에 본 연구에서 시도한 바와 같이 그룹 형태의 통합화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대일로에 참여 하고 있는 많은 국가들의 무역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총량에 대한 기여도가 미비하지만, 일대일로 참여 국가를 그룹 관점에서 보면, 중국 무역에서의 비중이 60% 이상으로 매우 크며, 중국 전체 GDP에서도 2~3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한계는 연도별 대중국 수출입총액과 세계 수출입총액을 통해 국가 및 그룹 단위의 무역의존도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수출입 총액 및 GDP자료에 근거한 비중 및 무역의존도 도출에 한정한기 때문에 국가별 수출입 품목의 변화 등 세분화된 내용을 다루지 못했다. 또한, IMF와 NBS의 통계는 기관별 조사 방식 등의 차이로 동일한 조사에서도 크고 작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두 기관의 자료를 합산

하여 분석을 진행했기 때문에 본 분석의 결과 값에는 이에 따른 미비한 오류가 포함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과 일대일로 참여 국가 전체에 대한 상호간 무역 의존성 검토를 시도했지만, 개별 국가에 대한 영향력 변화를 깊이 있게 다루지 못했고, 이에 따른 정책적 대응방안 등을 제시하지 못했다. 향후 연구에서는 개별 국가단위로 대 중국 품목별 수출입을 포함하면 연구 결과에 대한 활용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며, 일대일로 사업이 국제 물류인프라 구축사업인 것을 감안할 때, 일대일로 주요 국가와 특정 지역에 대한 육상, 해상, 항공 인프라 현황 및 구축계획과 그에 따른 수출입 무역의 변동 등에 대해서도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일대일로 사업은 이제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진행한 95년부터 2015년까지의 분석에서는 일대일로 사업 추진에 따른 영향이 아직 반영되었다고 보기 힘들 것이며, 일대일로 국가 그룹과 중국 간에 구축되어온 수출입 무역관계를 설명해준다고 볼 수 있다. 일대일로 사업은 참여 국가들 간의 인프라 연계성 확충이 사업의 목표이고 참여 국가 간 원원 구조가 성립되어 있다. 이 때문에 중국의 독주와 자국 중심적 개발 추진 등에 대한 우려 속에서도 개별 국가는 해당 국가가 연계되는 직접적인 이익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고, 이에 따라 중국의 지역 내 영향력 확대 및 일대일로 사업의 구체화는 큰 틀에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수 있다. 하지만, 70여 개 이상의 국가가 참여하는 사업인 만큼 추진 과정에서 미국, 러시아, 일본, 인도 등 강대국의 견제와 중국과 사업 참여 국가 간의 이슈 등 다양한 변수가 개입될 수 있으며, 따라서 일대일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중국의 지역 내 영향력 변화 및 중국과 주요 국가의 상호간 무역관계 등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REFERENCES

- [1]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China's trade structure and implications (2000-2015)", p. 5, 2016.
- [2] Korea trade investment promotion agency, "China's imports and exports, Korea's imports and exports to China and its implications," p. 6, 2015.
- [3] S. K. Kwon, "Legal Issues and Policy Implications

- of Electronic Commerce Chapters of the Korea - China FTA”,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3, No. 10, pp. 9-17, 2015.
- [4] Y. S. Choo, “The Prospect of the China’s ‘One Belt, One Road’ Strategy in Southeast Asia”,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Vol. 18, No. 2, pp. 169-190, 2015.
- [5] L. Bonatti, A. Fracasso, “Regime switches in the Sino-American co-dependency: Growth and structural change in China”, *Structural Change and Economic Dynamics*, Vol. 25, pp. 1-32, 2013.
- [6] S. I. Choi and J. H. Cho, “An Analysis on Taiwanese Trade after ECFA”, *Journal of Ocean Development*, Vol. 25, pp. 111-129, 2016.
- [7] S. O. Han, “An Analysis on the Realities and Features in North Korea’s Degree of Dependence upon Chinese Trade since the 1990s: In Connection with the Implication and Problem Awaiting Solution to Establish a Korean Peninsula Economic Community”, *The Journal of Peace Studies*, Vol. 16, No. 4, pp. 111-141, 2015.
- [8] Y. Y. Kim, “Expanding economic influence of China, North Korea and South Korea’s Challenges”, *Journal of Policy Sciences*, Vol. 20, No. 2, pp. 24-55, 2010.
- [9] H. B. Lee and D. Y. Oh, “Changes in the Industrial Linkage and Trade Dependency between Korea, China and Japan”, *The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Modern Japanology*, Vol. 40, pp. 463-476, 2014.
- [10] C. P. Bown and R. McCulloch, “U.S. - Japan and U.S. - China trade conflict: Export growth, reciprocity, and the international trading system”, *Journal of Asian Economics*, Vol. 20, pp. 669-687, 2009.
- [11] T. W. Chung, “A Study on Trade Structure Analysis between Korea and GCC(Gulf Cooperation Council) Countrie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4, No. 11, pp. 135-142, 2016.
- [12] X. Jin, D. D. Li, S. Y. Wu, “How will China shape the world economy?”, *China Economic Review*, Vol. 40, pp. 272-280, 2016.
- [13] W. J. Kim, “The Impact of China on Indonesian Economy”, *The Journal of Northeast Asian Economics Studies*, Vol. 26, No. 3, pp. 1-36, 2014.
- [14] S. Peyrouse, “Discussing China: Sinophilia and sinophobia in Central Asia”, *Journal of Eurasian Studies*, Vol. 7, pp. 14 - 23, 2016.
- [15] J. Y. Shin, “The arrival of the new normal era in China and its economic strategic change against Central Asia”, *The Review of Eurasian Studies*, Vol. 13, No. 4, pp. 15-32, 2016.
- [16] I. H. Song and G. Y. Lee(2012), “A Study of Chinese Peaceful Rise and East Asian Regional Cooperation”,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Vol. 14, No. 3, pp. 75-96, 2012.
- [17] B. Vahalik, “Regional Bilateral Trade Analysis of the European Union, China and ASEAN”, *Procedia Economics and Finance*, Vol. 12, pp. 709 - 717, 2014.
- [18] S. McDonald, S. Robinson, K. Therfelder, “Asian Growth and Trade Poles: India, China, and East and Southeast Asia”, *World Development*, Vol. 36, No. 2, pp. 210-234, 2007.
- [19] Vianna, “The impact of exports to China on Latin American growth”, *Journal of Asian Economics*, Vol. 47, pp. 58 - 66, 2016.
- [20] “Trade of Goods, Values of Exports/imports, FOB”,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ww.imf.org](http://www.imf.org), July 1, 2017.
- [21] “11-6. Value of Imports and Exports by Country of Origin/Destination”, *National Bureau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ww.stats.gov.cn](http://www.stats.gov.cn), July 1, 2017.

송민근(Song, Min Geun)



· 2017년 2월 : 인천대학교 동북아국제통상대학 (국제통상학 학사, 석사), 동북아물류대학원 (물류경영학 박사)

· 2006년 6월 ~ 2009년 5월 : 인천발전연구원 동북아물류연구실 연구원

· 2009년 5월 ~ 2016년 9월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본부 전문위원

· 관심분야 : 국제물류, 국제통상

· E-Mail : haoweahter@naver.com